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며,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24. 6. 26.(수)

자료문의 : 대검 형사선임연구관실

전화번호 : 02-3480-3425

주책임자 : 형사선임연구관

제목

'24년 5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24년 5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였음(※ 상세내용 별첨)

① 263명의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율 초과 이자 약 2억9,000만원 상당을 수취한 무등록 대부업 사건에서, 검찰에서 직접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약 2,800회 상당의 원리금 상환내역 이율 계산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대포계좌로 채무자 222명 으로부터 제한이율 초과 이자 7억원을 수취한 **추가 범행을 밝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사례 [서울서부지검]

②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등 피해자 3명에 대한 모욕 등 송치 사건을 각각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무분별하게 허위 영상을 게시하는 악의적 '사이버렉카' 활동을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가 영상 편집에 사용한 노트북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유튜브 채널 수익금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하여 범행의 전모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구조를 밝히고** 정통망범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하는 한편, **범죄수익 2억 1,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한 사례** [인천지검]

③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되었다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6억원대 횡령 사건에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계좌의 내역과 세금계산서 일체를 확보한 후 대검 D-NET 계좌분석시스템으로 계좌내역을 전면 재분석하여** 회사 대표인 피의자가 **부풀려 받은 매매대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시킨 뒤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음을** 밝히고, 거래처 대표가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 및 이들이 **자금세탁 범행 등을 통하여 횡령 자금을 숨긴 사실을 규명하여** 피의자 2명을 기소한 사례 [평택지청]

④ 피해자 1명에 대한 전세사기 송치 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다른 임대 부동산이 다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임대 부동산 목록 등 자료를 확인하고 **22개 계좌의 7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딸이 진범인 사실과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규명하여,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140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 진범을 기소한 사례** [제천지청]

⑤ 시행사·시공사 대표 등이 수분양자 300여명을 상대로 허위의 손해배상 채권과 유치권을 내세워 145억원 대의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에서, 검찰은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2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분석하여, 주범이 시공사와 시행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수분양자 들에 대한 아파트 인도를 저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아파트 내부시설을 손괴 하고, 허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 사법방해'를 저지른 사실을 명확히 밝혀** 피의자 3명을 기소한 사례 [울산지검]

■ 첨부 : 우수 수사사례 선정 내역

순 번	소 속 부 장 주임검사	우수 수사사례
1	서울서부지검 형사제4부	<p>【정성저리】 263명의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율 초과 이자 약 2억9,000만원 상당을 수취한 무등록 대부업 사건에서, 검찰에서 직접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약 2,800회 상당의 원리금 상환내역 이율 계산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대포계좌로 채무자 222명으로부터 제한이율 초과 이자 7억원을 수취한 추가 범행을 밝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사례</p> <p>사안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치) '21. 10.~'24. 4.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263명으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2억 9,000만원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유포할 것처럼 채무자를 협박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 (검찰인지) '22. 3.~'24. 4. 채무자로부터 이자 삭감 등 조건으로 양수받은 차명 계좌 및 대포폰을 이용해 222명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7억원을 수수하고, 범죄수익 9억 9,000만원의 취득 사실을 가장 [대부업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유효제 (35) ※ 現 인천지검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 263명으로부터 제한이율 초과 이자 합계 2억 9,000만원을 수취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대포계좌 6개의 약 3년간 거래내역 분석, 총 2,865회의 원리금 상환 내역의 이자율 계산, 피해자 진술청취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자 감면 등의 조건으로 양수받은 대포폰, 대포계좌를 활용하여 채무자 222명으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7억원을 수취한 추가 범행을 밝혀 구속 기소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였음
	이가은(변6)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2	인천지검 형사제1부	<p>【신중 범죄 업정 대응】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등 피해자 3명에 대한 모욕 등 송치 사건을 각각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무분별하게 허위 영상을 게시하는 악의적 '사이버렉카' 활동을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가 영상 편집에 사용한 노트북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유튜브 채널 수익금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하여 범행의 전모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구조를 밝히고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하는 한편 범죄수익 2억 1,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한 사례</p> <p>사안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1. 10.~'23. 6. 유튜브 채널에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피해자 A 등 7명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23회 게시하고,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외모 비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욕적인 영상을 19회 게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 피해자 A의 소속사 주식회사 B의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피해자 3명에 대한 모욕 등으로 사건을 각각 송치받아 피의자가 '사이버렉카'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함으로써 피의자가 영상 편집에 사용한 노트북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범행 전모와 추가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유튜브 채널 수익금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 피의자가 직업적으로 가짜 이슈 생성,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인 가짜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높은 조회수와 회원가입 등을 유도하고, '21. 6.~'23. 6. 단기간에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사이버렉카' 범죄임을 명확히 밝힘 ○ 또한 피의자가 유튜브 채널을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대형 소속사도 멤버십에 가입했다는 등으로 홍보하고, 영상을 시작할 때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금전적 후원을 유도하는 등의 수익구조를 밝혀냄 ○ 검사는 유튜버를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하고 피의자가 수익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유튜브 채널의 범죄수익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하고, 위 부동산을 추징보전하여 '사이버렉카'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였음
	이곤호(33)	
	이아람(변6) 곽예신(변7)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3	평택지청 형사제2부	<p>【정성처리】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되었다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6억원대 횡령 사건에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계좌의 내역과 세금계산서 일체를 확보한 후 대검 D-NET 계좌분석시스템으로 계좌 내역을 전면 재분석하여, 회사 대표인 피의자가 부풀려받은 매매대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시킨 뒤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음을 밝히고, 거래처 대표가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 및 이들이 자금세탁 범행 등을 통하여 횡령 자금을 숨긴 사실을 규명하여 피의자 2명을 기소한 사례</p> <p>사안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 A, B) '16. 7. ~ '20. 10. B가 운영하는 乙사가 A가 운영하는 피해회사 甲사에 실제 공급한 물품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부풀린 차액 상당을 甲사로부터 받은 뒤 A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甲사의 자금 합계 6억 3,390만 원을 횡령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피의자 A, B) 위와 같이 횡령한 甲사의 자금 합계 6억 3,390만 원 상당을 다수 계좌를 이용하여 분산 이체시킨 후 최종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취득 또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김주현(36) ※ 現 대검찰청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의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기록 전면 재검토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대검 D-NET 계좌분석 시스템 분석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인 B의 존재 단서를 확인하고, 충실한 직접수사를 진행하여 B의 관여 및 피의자들의 자금세탁범행을 추가로 인지하는 등 총 6억 3,390만 원 규모 횡령 범행의 전모를 규명함
	손은선(변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과정에서 검사는 ① 거짓으로 작성한 본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②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차례로 특정한 후 D-NET 계좌분석 시스템을 통해 피해회사 계좌에서 乙사의 계좌로 세금계산서 물품가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금원이 송금되면 B가 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횡령금을 분산이체 시킨 후 이를 최종 현금 출금하여 A에게 전달한 사실을 전부 밝혀내고, B까지 검찰 인지하여 A, B를 모두 기소하였음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4	제천지청	<p>【민생침해 사범 엄단】 피해자 1명에 대한 전세사기 송치 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다른 임대 부동산이 다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임대 부동산 목록 등 자료를 확인하고 22개 계좌의 7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딸이 진범인 사실과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규명하여,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140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 진범을 기소한 사례</p> <p>사안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5.~'20. 9. 신축빌라 21채를 매수하면서 한 채당 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2천만원 높게 부풀려 임대하고 이를 건축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하여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억 7,8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편취 【사기】 ○ '17. 8.~'21. 12.경 신축빌라를 매수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취득등록세 지원 명목으로 한 채당 300~800만원을 리베이트로 교부받고 실제 매매대금이 보증금보다 낮은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하여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억 1,6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 【사기】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 송치 이후, 관련자 조사 및 피의자의 전체 임대 부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 확보하여 권리관계·확정일자 등을 분석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22개 계좌의 7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치된 피의자의 범행이 아니라 피의자의 딸이 진범인 것을 확인하여 인지, 추가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피의자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 편취금 사용처 등을 확인함으로써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였음 ○ 피해자 1명에 대한 송치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여 숨겨진 진범이 다수의 부동산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구입하고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 등을 규명, 피해자 60명에 대한 사기범행을 밝혀내 기소하여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였음
	최수봉(36) ※ 現 법무부	
	김지윤(변9)	

순 번	소 속 부 장 주임검사	우수 수사사례
	5	